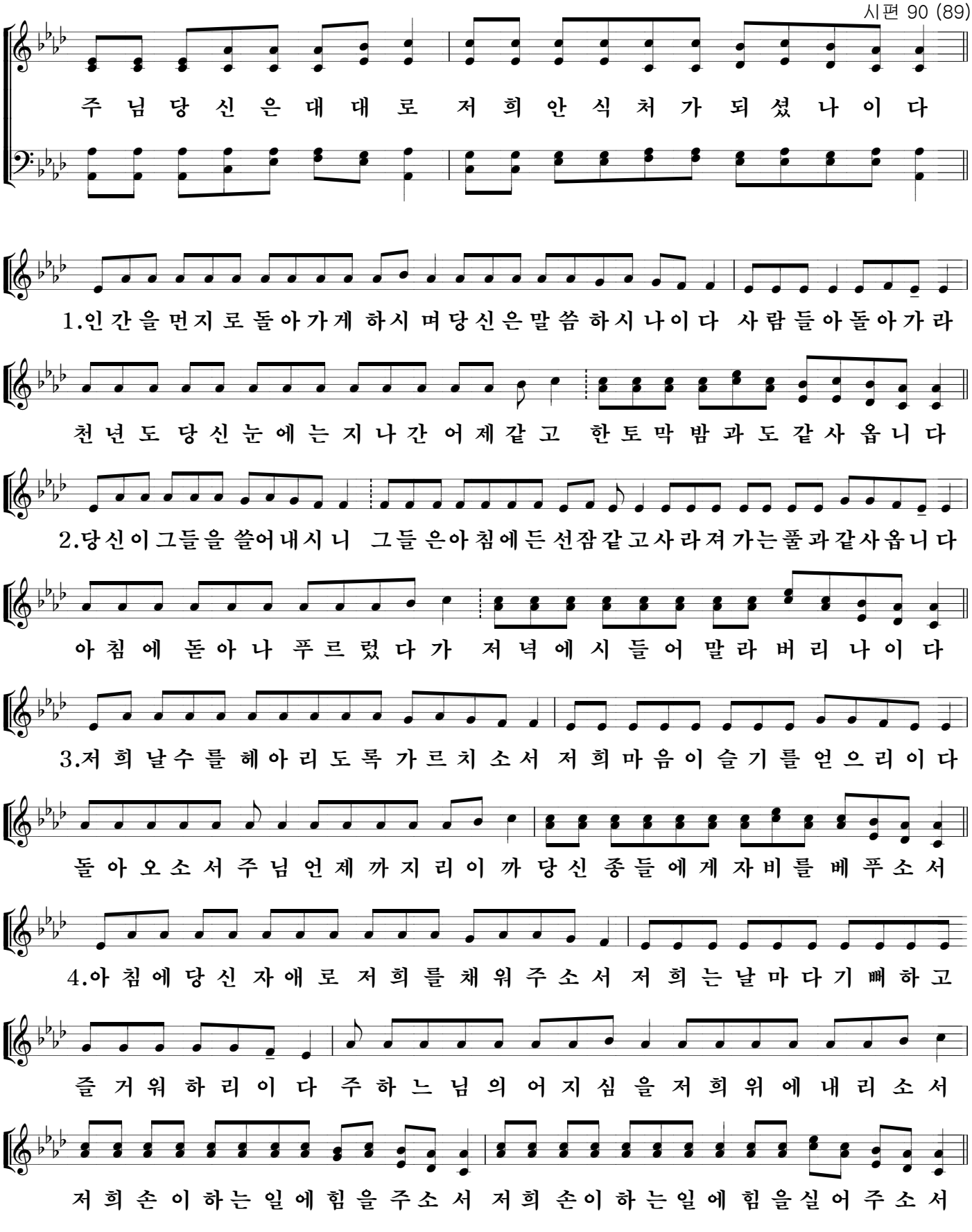연중 제 18주일 (다해)


시편 90 (89)
주 님 당 신 은 대 대 로 저 희 안 식 처 가 되 셨 나 이 다
1.인 간 을 먼 지 로 돌 아 가 게 하 시 며 당 신 은 말 씀 하 시 나 이 다 사 람 들 아 돌 아 가 라
천 년 도 당 신 눈 에 는 지 나 간 어 제 같 고 한 토 막 밤 과 도 같 사 옵 니 다
2.당 신 이 그 들 을 쓸 어 내 시 니 그 들 은 아 침 에 든 선 잠 같 고 사 라 져 가 는 풀 과 같 사 옵 니 다
아 침 에 돋 아 나 푸 르 렀 다 가 저 녁 에 시 들 어 말 라 버 리 나 이 다
3.저 희 날 수 를 헤 아 리 도 록 가 르 치 소 서 저 희 마 음 이 슬 기 를 얻 으 리 이 다
돌 아 오 소 서 주 님 언 제 까 지 리 이 까 당 신 종 들 에 게 자 비 를 베 푸 소 서
4.아 침 에 당 신 자 애 로 저 희 를 채 워 주 소 서 저 희 는 날 마 다 기 뻐 하 고
즐 거 워 하 리 이 다 주 하 느 님 의 어 지 심 을 저 희 위 에 내 리 소 서
저 희 손 이 하 는 일 에 힘 을 주 소 서 저 희 손 이 하 는 일 에 힘 을 실 어 주 소 서